SOCIETY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마지막 글로컬大 잡아라”…지역 대학 ‘총력전’

전남대, 조선대 연합, 광주대·호남대 연합, 광주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목포가톨릭대 도전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마지막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마지막 10곳을 선정한다.

6일 광주·전남 각 대학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는 올해 단독형으로 다시 도전하며 사업 개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지나치게 포괄하지 않고 집중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전남대는 ‘문화, 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AI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인공지능(AI) 분야를 공학·의생명·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문화에 접목해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Asia) 넘버원 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명 양성, 창업 및 기업 유치 200개 달성,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5000명 달성을 목표로 도전한다.

지난번에는 다른 대학들과 연합했으나 이번에는 같은 법인인 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며 구조혁신형 모델로 도전한다.

광주대와 호남대는 공동 입시, 무경계 학사 개방, 연합대학 대표총장제 도입을 내세우며 사립대 연합 모델로 도전에 나섰다. 문화도시 광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휴먼케어·로코노미·창조문화·스마트시티 등 4대 일자리 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여대는 ‘2030년 지역사회 상생 MAUM(마음) 돌봄 글로컬 HUB 대학’을 비전으로 정하고 단독형 모델로 신청했다.

의료·복지·정신 돌봄 등 통합돌봄 체계와 보건·사회복지·상담심리 계열 전공을 연계해 마음 돌봄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유관 연구기관과 마음돌봄 중심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와 목포 가톨릭대가 각각 연합형과 단독형으로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그동안 순천대, 목포대가 단독형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광주보건대가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함께 ‘한달빛 글로컬 보건 연합대학’을 구성해 지정됐다.

예비지정 평가는 혁신성(60점)·성과관리(20점)·지역적 특성(20점)을 심사해 이달 중 발표하며 본지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 시간대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3분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추가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양형주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성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묻지마 범행으로, 극단적인 인명 살해에 해당한다”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 여부는 엄격히 심사된다. 이에 따른 영구적인 사회 격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의정 갈등 속 전남대병원 전공의 70% 이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 70%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전남대병원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지난 1분기 전공의는 95명으로 전년 동기(315명) 대비 69.84%가 감소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는 9명으로 전년 동기(25명) 대비 64.00%가 줄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전임의의 자리는 겸직교원과 임상교수요원이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겸직교원은 지난해 256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48명으로 늘었다.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의사를 병행하는 겸직교원의 정원 확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물론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증가도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진료 전담 의사인 임상 교수요원은 지난해 1분기 190명에서 올해 159명으로 줄었지만, 그 감소 폭이 전공의·전임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올해 초 신규 간호사 36명을 임용하고 전임의와 임상 교수요원을 상시 채용 중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금남로 차없는 거리 휴일을 맞아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자잉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바닥분필 아트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동구 인문도시 정체성 확립 정책 ‘눈에 띄네’

전국 유일 인문도시정책과 신설…음악여행 등 극대화
학생 참여 활성화…“지역 자부심·365일 따뜻한 시간”

광주 동구가 지난 6년여간 ‘인문도시’라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전국 유일의 ‘인문도시정책과’ 신설로 인문학당과 시인 문병란의 집, 인문 산책길 등 인문 거점공간 운영 등으로 인문의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동구가 2020년 4월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있는 근대가옥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던 주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해당 건물이 2022년 1월 동구 인문학당으로 거듭났다.

올해로 개관 4년 차를 맞은 동구 인문학당을 찾는 방문객은 3만7000여명에 이른다. 수천여권의 문학 도서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함께 보는 ‘영화 인문학 극장’, 그 옛날 추억이 서린 ‘다락방의 음악 여행’, 사계절의 기후와 어울리는 친환경 음식으로 기후밥상을 차려보는 ‘공유 부엌’ 등 다채로운 인문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동구의 인물과 장소, 이야기 등 인문 자원을 산책길로 엮은 ‘인문산책길’은 2020년 스토리텔링을 통해 조성됐다.

인문산책길은 무등 가는 길(학동·학운동 일원, 광주백범기념관~증심사), 광주정신 원형길(충장동·서남동 일원, 서석초등학교~본원사 터), 뜻세움길(지산동 일원, 지산동 오층석탑~지산유원지), 밝은 희망길(동명동 일원, 전남공립사범학교터~동문다리터) 4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동구가 인문도시로 거듭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인문학당 공간을 활용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나·너·우리, 생각모음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중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문 수업의 확장판으로, 학교별로 총 3회 운영한다. 마을교육 공동체 강사가 참여해 문학, 독서, 기후 위기, 학생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예술 경험을 제공,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동구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으로 기획된 ‘학교 옆, 동구의 인물을 만나다’ 프로그램도 작년에 이어 올해 총 5곳의 초등학교 학생 223명이 참여하는 등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구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흥종 등 지역의 인물을 이론 및 현장 탐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 다른 인문 거점 공간인 ‘시인 문병란의 집’(밤실로 4번안길 16)은 지산동에 거주한 문병란 시인의 작품과 생애를 기리기 위해 실제 거주한 자택을 리모델링·조성된 인문 활동 공간이다. 박노식 등단 시인이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여름·겨울방학에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 중이다.

임택 청장은 “인문학당과 같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대표하는 인문 거점 공간에서 많은 주민, 활동가들이 다양한 인문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365일 따뜻한 인문의 시간을 통해 이웃과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황금 연휴기간 사건사고 ‘얼룩’

리조트 일산화탄소 유출…폭주 이륜차 신고도

5일 간의 황금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56분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숙박객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중독 증상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성인 9명, 어린이와 청소년 5명 등 14명을 병원 여러 곳으로 분산 이송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리조트에는 숙박객 총 69명이 21개 객실에서 투숙 중이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인 일부는 건물 밖으로 대피 후 현장에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환자들은 4층 11명(4개 객실), 3층 2명(1개 객실), 6층 1명(1개 객실) 등 여러 층에 걸쳐서 동시에 발생했다.

해당 객실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됐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4층의 경우 복도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으로 실내 공기 기준 허용 농도(50ppm)의 8배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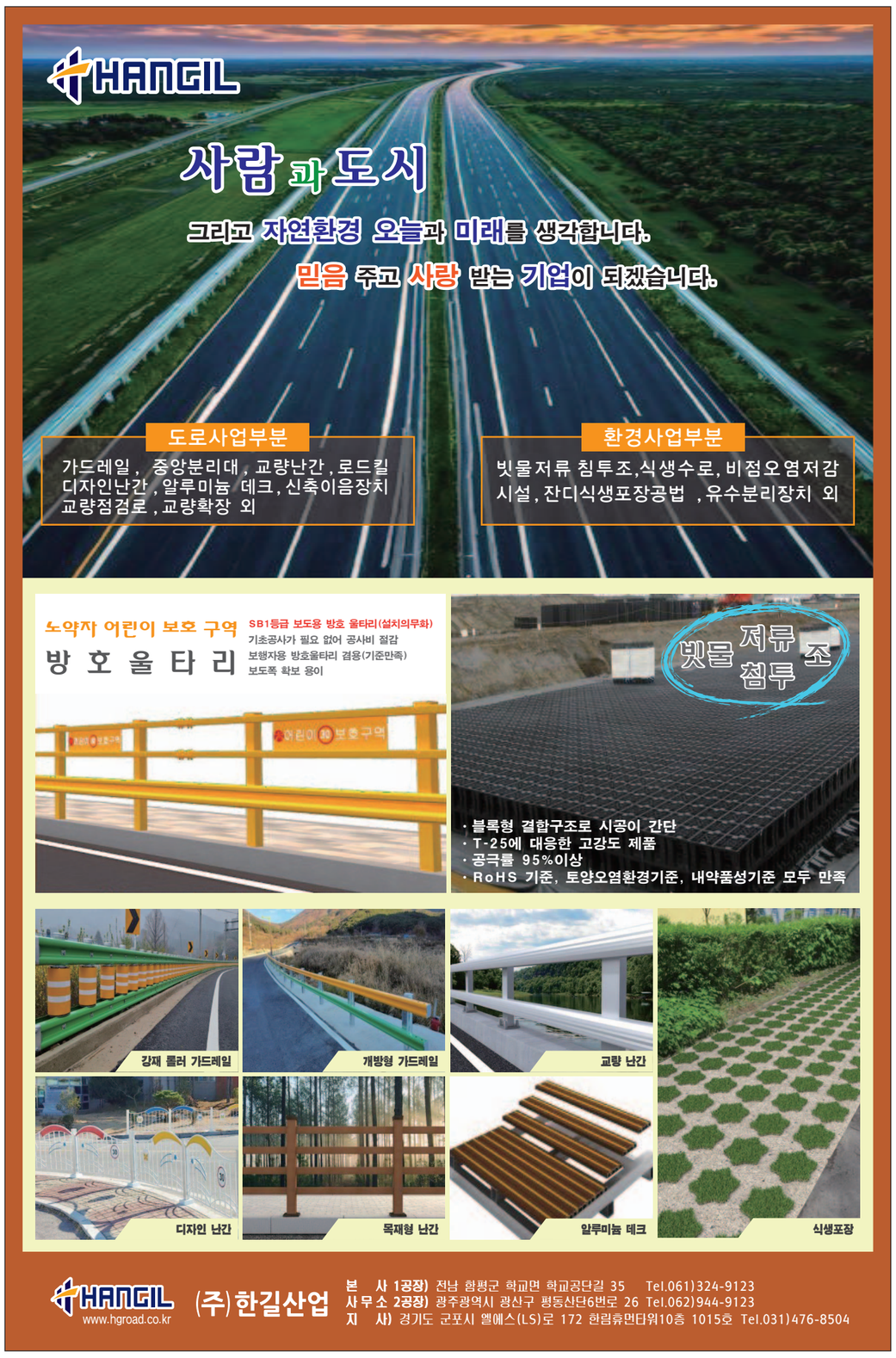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건물 밖으로 정상 배출되지 않은 일산화탄소가 복도로 새어 나와 객실 내부까지 스며든 것으로 추정하고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였다.

나들이 차량 추돌 사고도 잇따랐다.

4일 오후 4시52분 함평군 학교면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11분 장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나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어린이날에는 폭주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에 나섰다.

광산경찰은 5일 오전 12시께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폭주족이 위협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